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6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24호 1판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한나라당 내일 전대…당권주자 호남 공약

"비례대표 최대 9명 배정 엑스포·F1 등 전폭 지원"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활동 중인 인사 중 최소 2~3명, 많으면 7~9명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여수엑스포와 F1대회, J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2일 광주일보가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들은 19대 총선에서 최소 2석에서 최대 당선 안정권 50%까지 호남 인사에게 비례대표를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혜훈·이성헌 후보는 당 대표가 될 경우 호남 출신 인사들을 40~50% 이상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고, 김대식·정두언 후보는 호남 비례대표 의원을 7~9석 이상 배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후보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 제도적으로 한나라당 호남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2012년 총선의 공천과 대선 경선관리를 맡게 돼 19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실제로 활동 중인 인사로는 이정현 의원 단 1명 만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또 '호남지역 발전 공약'으로 전당대회 주자들은 여수엑스포·F1대회·J프로젝트·새만금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김대식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추가했으며, 한선교·나경원 후보는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추가 공약했다.

하지만, 지원을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오랫동안 지체돼온 지역 현안들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감정 해소 및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해법이 제각각이었다. 홍준표·나경원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 김대식 후보는 '호남 출신 대표 출현', 이혜훈 후보는 '경제적 화합', 이성헌 후보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두언 후보는 '다극화된 지역 허브 창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의원 투표 7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5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 대표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전대에 나설 대의원 9000여명은 1인당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12일 "후보마다 지역을 찾아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으나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라며 "특히 취약지역인 호남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 전국 정당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후보 12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도했으나 서병수·정미경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고, 남경필 의원은 후보 단일화로 11일 사퇴하는 바람에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적 함대' 스페인 축구대표팀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폐회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복했다, 한달간의 지구촌 축제

남아공월드컵 스페인, 네덜란드 1-0 꺾고 우승

'무적함대' 스페인이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꺾고 80년 월드컵 역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3·18·19면〉

스페인은 12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1분에 터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결승골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1-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까지 13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스페인은 브라질(5회 우승)과 이탈리아(4회), 독일(3회), 아르헨티나·우루과이(이상 2회), 잉글랜드· 프랑스(이상 1회)에 이어 여덟 번째로 월드컵 우승국 대열에 합류했다.

스페인은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 우승에 이어 월드컵까지 제패해 세계 최강 면모를 뽐냈다. 스페인은 종전 1950년 브라질 대회 4위가 최고 성적일 정도로 월드컵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스페인은 또 비유럽지역에서 개최된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유럽팀이 됐다.

반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벽에 막히면서 첫 우승 꿈이 물거품이 됐다. 네덜란드는 1974년 서독 대회와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에서 2회 연속 준우승했을 뿐 월드컵에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한편, 대회 MVP 골든볼은 40년 만에 우루과이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디에고 포를란(아틀레티고 마드리드)에게 돌아갔다. 스페인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 골키퍼에게 주는 골든 글로브는 스페인의 수문장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의 몫이 됐다. 독일의 토마스 뮐러(뮌헨)는 득점왕(골든 부트)과 신인왕(베스트 영 플레이어)을 한꺼번에 차지했다.

2014 월드컵은 브라질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목포까지 슈퍼카 30대 달린다

F1 100일 앞두고 주말·휴일 대대적 기념행사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100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광주·전남 일원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

12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1대회 D-100일(16일)을 맞아 16~18일 서울과 광주, 전남 목포 일원에서 카퍼레이드와 드래그 레이스 등이 펼쳐진다.

조직위는 오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부터 목포시 평화광장을 잇는 약 100㎞의 일반도로에서 대규모 카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날 카퍼레이드에는 오토쇼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슈퍼카 30여대가 참여해 시·도민들에게 직접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선보인다.

카퍼레이드는 광주시 금남로를 출발해 국도를 타고 나주와 영암을 거쳐 목포 하당 평화광장까지 진행되며 F1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게 된다.

또 18일에는 목포 옥암지구 서해지방경찰청 앞에서 국내 경주차량 250대가 참여하는 '드래그 레이스'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서해지방경찰청 앞 도로 1㎞ 직선 구간에서 진행되며 서킷에서나 볼 수 있는 튜닝카들이 직접 출동해 일반도로에서 2차례의 예선경기와 1차례의 결승 레이싱을 펼친다.

성공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과 개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캠페인도 열린다. 조직위는 16일 목포 만남의 광장 등에서 범도민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도 전남도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 홍대입구 등에서는 F1대회 진행요원들이 사용하는 무선 헤드폰을 착용한 100여명이 선보이는 'F1사일런스 스피드 디스코 파티'가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6탄
이주헌 미술평론가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 선착순 100명·무료
16일(金)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